

아시아 카프로락탐 시장 구조변화

중국 반덤핑 규제로 일본 수출타격 ... Sumitomo 6만톤 증설도 문제

중국이 카프로락탐(Caprolactam)의 덤핑문제에 관련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함에 따라 아시아 CPLM 시장에 구조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중국의 CPLM 수입량이 덤핑관정으로 크게 감소하는 대신 나일론 Chip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나일론 칩 수입거점이 타이완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CPLM 시장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데, 일본제품은 중국수출이 막히더라도 타이완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판매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덤핑의 계기로 작용했던 러시아 제품은 판로를 잃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덤핑 공급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Sumitomo Chemical이 증설한 6만톤의 수급밸런스에 대한 영향력도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1월7일 잠정결정에서 일본 생산기업에 대해 5-18%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수출이 불가능해진 상태이고, 러시아나 독일 등도 수출이 가능한 곳은 동유럽, 인디아, 미국 정도로 제한되고 있다.

중국은 CPLM 수요가 2002년 32만-33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일본산 수입을 막음으로써 수입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타이에서 증설을 결정한 宇部興産도 ASEAN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어 타이에서 중국수출을 늘리는 것도 무리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DSM이 南京에 CPLM 8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아직 건설시기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기업이 수만톤 공장을 건설한다는 설도 있지만 실현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때문에 나일론 칩 수입이 증가하고, 타이완이 중국수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에서는 1999년 말부터 신규 4사가 나일론 중합을 시작하는 등 생산능력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낮은 가동이 계속돼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集盛 등 2사가 표명했던 2만-3만톤 정도의 증설도 현실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수입하고 있었던 CLPM은 일정부분 타이완으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러시아 제품으로, 러시아의 중국 수출량은 2001년 14만톤에 달해 중국이 덤핑 제소하는 계기가 됐다. 또 2003년 봄 증설한 Sumitomo의 6만톤도 중국 이외지역 판매처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아시아의 CPLM 수요는 140만톤에 달하는 반면 생산능력은 63만-64만톤으로 약 80만톤을 수입해야 하는데 중국의 반덤핑 결정에도 시장구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 러시아 수입물량이 Sumitomo 증설제품으로 대체될 것이 확실시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파란을 불러올 요인이 되고 있다.

CPLM은 원료인 벤젠 가격이 오르고 있는 반면 CPLM 가격 현실화는 늦어지고 있어 2003년 1/4분기에는 톤당 1250달러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입이 중단된 중국에서는 상승경향이 보이고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러시아 제품의 공급가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Chemical Journal 2003/04/16>